1946년 조선건축기술단 주최 국민주택 설계도안 현상모집의 재고찰

A Study on the Housing Competition Promoted by Cho-Sun Architectural Engineering Group in 1946

김 옹 범*
Kim, Young-Bum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details and characteristics of prizewinning plans of housing competition promoted by Korean architects group in 1946. The competition were held for the first since Liberation of Korea, and had practical purpose to construct houses to solve severe shortage of housing. This study found common trends of housing plan by prizewinning architects, analyzing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prizewinning plans. Architects pursued western style living for renewed living conditions of people, planning precedent houses to put reception room at the heart of dwelling spaces and centralize them using entrance hall or corridor for traffic lines. Also, they arranged reception room and family room facing to the south and placed lavatory or bathroom inside of houses for hygiene. Kitchens were finished with wooden floor to keep same level of reception room and equipped with sink, kitchen table, pantry for convenient housekeeping. The result of competition become a basis of constructing houses by housing administration in 1947, and more important foundation for planning typical public houses of national housing corporation.

Keywords : Cho-Sun Architectural Engineering Group, Cho-Sun Housing Corporation, Public House, Housing Improvement, Housing Competition

주 요 어 : 조선건축기술단, 조선주택영단, 국민주택, 주택개량, 주택현상설계

1. 서 론

1. 연구의 배경의식

조선건축기술단(이하 '건축기술단')은 1945년 9월 1일 김세연(金世演) 단장을 위시하여 김윤기(金允基), 박인준(朴仁俊) 부단장을 비롯한 50여명의 건축인들이 모여 창립총회를 갖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광복 직후의 국내 정세는 주시하다시피 국제사회의 이데올로기 논쟁 속에서 분단이라는 큰 정치적 혼란에 직면하고 있었으며, 이전 시대부터 누적되어온 주택 부족과 적산가옥 처리 등 사회적으로 주거문제의 안정이 절실히 요구되던 시기였다. 이에 반해 이 시기의 건축생산 활동은 미군정 하에서 관련시설 공사를 중심으로 응급 보수 및 일부 증·개축 공사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더욱이 이전 시대 일본인이 장악하고 있었던 건축행정의 일시적 부재와 청산 문제는 광복 직후의 건축계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초래하고 있다.¹⁾

이러한 격변기 속에서 건축기술단의 결성은 광복 이후 최초의 유일한 건축전문단체²⁾로서 우리 건축계를 새롭게 구축하고자 했던 건축인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건축기술단이 실시했던 사업은 크게 국민주택 현상설계의 공모, 건축술어 제정사업 그리고 기관지 『朝鮮建築』의 발행이었다.³⁾ 건축기술단은 창립직후인 1945년 11월 국민주택 설계도안을 현상 모집하였고, 1946년 2월부터 건축술어 제정위원회를 설치하여 7월까지 약 5개월간 75회의 심의를 거쳐 우리말 건축술어안⁴⁾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기관지 『朝鮮建築』은 1947년 3월에 창간되어 1949년 5월의 9호까지 계간(季刊)으로 총 9호가 발행됨으로써

1) 광복 2년을 맞이한 당시 건축계의 상황을 김세연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자주독립 달성 전이의 우리 건축계를 볼 때 필연적으로 혼란은 연속되고 ... 그 기능은 전면적으로 질식상태에 빠지고만 것같은 늦김을 갖게하며, 조국건설에 이바지해야 할 건축부문의 산적한 제문제는 쌓이고 쌓인 후 후퇴되고 있다는 것을 窮知할 수 있는 바이다. 산업경제 부흥에 기간이 되어야 할 긴박한 주택건설문제, 건설공업 재편성문제 나아가서는 문화건설문제 등 모든 당면문제에 관하여 응급적으로나 항구적으로나 ... 아득한 한가지도 해결점을 발견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우리 건축가는 불의의 왜정 압제하에서 맞본 超然主義를 하로받비 청산하고 ... 조선건축의 나아갈 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일로 실천행동주의로 나아갈 것을 건축가 제한께 부르짖는 바이다. 김세연(1947.8.). 건축가의 사명. 朝鮮建築, 1(3), 2.

2) 광복 직후 결성되었던 각종 문화예술 관련단체 중, 1947년 2월 12일 종로 기독교청년회관에서 개최된 전국문화단체 총연합회에 참가했던 30여 단체 중에서 건축단체는 조선건축기술단 밖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全國文化總聯發足(1947.2.9.). 東亞日報, 2면.

3) Park, Y. (2010). Theory of Korean Modern Housing. Kimoonang, 407.

*정회원(주저자, 교신저자), 가나가와(神奈川)대학 공학연구소 연구원, 공학박사

이 시기의 유일한 건축 전문지로서 귀중한 사료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건축기술단이 창립 직후 가장 먼저 실시했던 국민주택 설계도안의 현상모집은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해외 및 북한 동포의 귀환으로 악화일로로 걷는 주택난⁵⁾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광복 이후 주택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 부문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던 시점에서 건축기술단의 주택현상설계를 조선주택영단(대한주택공사의 전신)이 후원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실제 주택건설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현상설계는 광복 이후의 주택 동향과 그와 관련한 주거 담론을 고찰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목적과 방법

건축기술단의 국민주택 설계도안 현상모집은 광복 이후의 건축계 동향 혹은 건축기술단의 활동 중의 하나로 주로 고찰되어 왔으며⁶⁾, 현상모집을 직접 고찰한 연구로서는 이영한(1993)의 연구⁷⁾가 유일하다. 이영한의 연구에서는 현상모집의 경위와 입선자 및 심사자의 신상 분석 그리고 당선안의 공간 유형을 추출하여 전통주택의 공간구성과의 비교를 통해 안채 및 사랑채 개념의 공간 배치, 내·외부 공간의 구성과 상호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전통적 공간 계획의 경향을 밝히고 있다. 즉, 현상설계의 입선안들에서 보이는 전통적 요소의 발견을 통해 광복 이후 전통의 지속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건축기술단의 기관지 『朝鮮建築』 그리고 『東亞日報』, 『朝鮮日報』, 『工業新聞』, 『自由新聞』 등의 미발굴된 관련 기사들을 중심으로 국민주택 설계도안 현상모집의 재고찰을 통해 그 시대적 의의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하였다. 구체

적으로 현상설계의 경위와 입선안들의 평면특성 고찰을 통해 주거계획적 경향을 파악하고, 현상설계와 관련한 주택건설의 상세한 경위를 살펴봄으로써, 신국가 건설에 걸맞는 새로운 주택으로서 당시 건축가들이 중시했던 주택개량의 주안점과 어떠한 생활상을 추구하였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덧붙여, 이제껏 알아보기 힘들었던 현상설계 입선안의 도면들을 『朝鮮建築』 원본으로부터 재입수하여 수작업 가필로 도면의 가독성을 높였다.⁸⁾

II. 국민주택 설계도안 현상모집의 개략

1. 현상모집의 발표와 취지

건축기술단의 현상모집이 처음으로 지상(紙上)에 발표된 것은 1945년 11월 27일자 『工業新聞』⁹⁾에서였다. 건축기술단은 창립 직후 기관지의 발간을 기획하였으나 원고난, 자금난에다 당시의 용지난까지 겹쳐 지연되어 오다가¹⁰⁾, 1947년 3월에야 겨우 창간호를 발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朝鮮建築』 창간호에는 이미 현상모집이 끝난 후였기 때문에 건축가 유상하(劉相夏)¹¹⁾의 심사평과 당선도안이 함께 게재되어 있다.¹²⁾ 이 창간호를 통해 건축기술단이 현상모집을 처음 기획한 것은 1945년 11월 15일로 확인된다.

『工業新聞』의 현상모집 발표 기사를 살펴보면, 먼저 건축기술단을 ‘全鮮建築技術者를 總網羅하고 其 團員數가 專門學校以上 出身者가 約八百명, 中等學校 出身者가 約一千五百명 以上으로 將來 우리 新國家建設에 貢獻코져 結成된 團體’로 소개하고, 현상모집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國民保健, 其他 厚生施設에 있어 住生活의 研究야말로 우리가 當面한 急務中の 急務임은 多言을 要치 아니한다. 그럼으로 모든 力量을 傾注總合하여 如何한 住宅을 建設함이 우리 國民生活에 가장 適合한 것인가를 研究코져 國民住宅에 對한 設計案을 넓이 江湖에 募集하는 바이다. ... 半萬年의 歷史를 가진 우리 國民의 住生活에는 許多한 長

4) 조선건축기술단의 건축술어안은 장기인(張起仁) 선생이 개인적으로 일본건축학회 건축술어집을 참고하여 발굴, 수집한 우리말 건축술어안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조선어학회의 이중화(李重華) 선생의 심의를 거쳐 『朝鮮建築』에 연재, 발표되었다.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1996). 50 Year History of AIK: 1945-1995.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5-6.

5) 그렇지 않아도 深刻하던 서울 住宅難은 八,一五以前 倭族들의 強制로 疎開 때문에 雪上加霜이든次, 解放后 地方人口의 急激한 都市集中고 아울러 海外에 있는 戰災民의 激增으로 말미암아 더욱이 서울市の 住宅難은 날로 酷甚해가고 있다. 住宅難解消도 不遠, 營團에서 一萬戶計劃(1945.12.22.). 工業新聞, 2면.

6) 이와 관련한 학위 및 학회논문은 다음과 같다.

Lee, C. (1993).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Institutes in Korea from 1945 to 1955. Myongji University/Cho, K. (1997).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cond Half of 1940s in Korean Modern Architecture focused on 『ChosunKunchook(朝鮮建築)』. Yonsei University/Kim, R. (1997). A Study on the Character and Operations in Just After Liberation of the Korean Architects Circle.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6(3), 109-128.

7) Lee, Y. (1993). The Study on Traditional Characteristics of Competition Works for People Housing in 1945~46. Journa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38, 147-165.

8) 본 논문에 인용된 국민주택 현상설계 입선안과 조선인 주택행정처 신축주택의 도면은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국학자료실의 허가 및 협조 하에 『朝鮮建築』의 원본을 확인하고 입수한 것임을 당 기관의 요청에 따라 밝혀둔다.

9) 生活革新의 前衛 建築技術團 猛活躍, 聲明과 懸賞募集(1945.11.27.). 工業新聞, 2면.

10)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1996). the above book, 6.

11) 유상하는 1930년 경성고등공업학교 건축과의 유일한 조선인 졸업생으로 경성부정 영선계에서 실무를 시작하였다. 주로 학교건축을 담당하였으며, 이후 대동공업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계획·설계 업무에 종사하였다. 광복 이후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영선과에 재직하며 강의를 하였고, 이 때 이화여자대학교 과학관(現 아펜젤러 홀)을 설계하였다. 그는 조선건축회(朝鮮建築會)로부터 관련 자료와 비품 일체를 인계받아 조선건축기술단을 결성하는데 기틀을 마련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2005), 인물사전[온라인],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12) 劉相夏(1947.3.). 國民住宅 懸賞設計 應募圖案 審査를 맞이고, 朝鮮建築. 1(1), 27-32.

處와 特性이 많지만은 多年間에 걸친 文化委縮으로 이미 消滅된 것도 尠少할 것이라 我等은 自由로운 立場에서 우리의 特長을 잘알고 世界의 文化를 吸收하여 그 長處를 取하고 短點을 버려 一等國民으로서의 遜色없는 住生活를 再建하여야 할 것이다. ... 今日까지의 歷史過程을 充分히 考察하고 將來의 構想을 鍊磨하여 充分한 實力을 發揮함으로서 新國家의 新生活를 創造토록 하야 ...

(밑선은 필자)

현상모집의 취지를 통해 건축기술단은 국민주택 현상설계를 통해 앞으로 어떠한 주택이 광복 이후의 국가 재건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가장 적합한 것인지를 되묻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주택의 설계는 이전 시대의 답에서 벗어나 진정 우리 국민만의 생활상을 설정한 바탕에서 새로운 주거문화의 장점을 취하여야 함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취지는 현상모집의 응모마감 직전의 발표기사¹³⁾에서도 한번 더 강조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새로운 생활상의 설정과 더불어 생활개선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설계안이 요구되었다.

2. 현상모집의 목적과 요강

1) 주택건설의 계획

국민주택 현상설계는 전술한 바와 같이 실제의 주택건설을 염두해 두고 조선주택영단이 후원하고, 그 외에 도시계획연구회¹⁴⁾와 공업신문사가 후원하고 있었다. 당시 주택영단 이사였던 이원식(李元植)의 발표에 따르면, 주택영단은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군정청의 협조를 얻어 서울에 1만호의 주택건설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건설에 앞서 주택설계를 건축기술단을 통해 현상모집 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¹⁵⁾

이 주택건설은 당초에 2만호 건설을 목표한 바, 그 중 1만호는 서울 시내에 그리고 나머지 1만호는 지방에 분산 건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극심한 자재난과

인력난으로 목표한 1만호를 단기간에 건설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매년 1천호씩 10년에 걸쳐서 건설하기로 계획하고 있었다. 건설자금도 처음에는 국고(國庫)로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이것 또한 여의치 않아 결국 연합국 구제 부흥기관(UNRA, 現 국제연합난민기구)의 원조를 통해 자재 및 자금난을 해결하였다.

건설 대상지는 교외 지역보다 시내 각지에 산재한 공지(空地)와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를 포함한 국유지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2천호 내외의 소집단으로 건설하기로 하였으며,¹⁶⁾ 주택영단 측은 현상모집의 응모마감 이틀 전인 1946년 2월 18일부터 건설 예정지의 부지 조사에 착수하여 측량을 시작하였다.¹⁷⁾ 그리고 3월에는 군정청으로부터 예산의 허가를 받아 동년 7~8월경에 완공을 예상하고 있었는데¹⁸⁾, 주택의 건설 위치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2) 주택의 설계 요건

『朝鮮建築』장간호의 심사평에 소개된 현상모집의 요강은 다음과 같다.

1. 都會地 또는 其 郊外에 適合한 것으로 하고 其 種類는 三種으로 할 것
2. 宅地, 位置, 方位, 道路隣地와의 關係 等은 適當히 할 것(設計說明項에 明記할 것)
3. 建物坪數는 ① 一家族當 15坪以內 一種
② 一家族當 20坪以內 一種
③ 一家族當 25坪以內 一種
4. 房數, 材料, 構造는 任意로 하되, 其 概要를 簡單히 記入할 것

현상모집의 요강에서 ‘도회지 또는 그 교외’에 입지하는 도시주택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주택의 규모를 한 가족당 15평, 20평, 25평으로 제한하였다. 여기서 ‘一家族’에 대한 가족 수나 구성원에 대한 요건은 없었고 그 외에 주택의 배치나 방위, 도로와의 관계, 실 개수, 재료 및 구조는 응모자 임의로 계획하도록 하였다.

주택현상설계에 있어서 가족형태에 대한 설계 요건이 없었던 것은 1세대 1주택 보유가 힘들었던 당시의 주택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대체적으로 부부와 자녀 1~2명에 식모가 있는 핵가족을 상정(想定)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현상모집을 발표할 당시에 아직 주택건설 예정지나 구체적인 건설계획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폭넓은 주택 설계의 가능성을 고려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¹⁹⁾

13) 앞으로 이루어질 새로운 생활에適應한 것이 아니면 안되는 것이라 한다. 舊穀을 完全히 벗어 버리고 새로운 나라에 새로운 생활을 가져야할 우리로서 먼저 着手할 것이 새로운 設計에 의한 住宅일 것이며 ... 새 生活의 雰圍氣를 吸收할 수 있고 生活改善의 意慾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 우리 民族의 새로운 生活相을 어떻게 把持하며 象徵한 優秀한 設計圖가 나타날 것인가고 자못 期待되는 바 크다. 住宅設計圖 建築技術團에서 懸賞募集한다(1946.2.16.). 工業新聞, 1면.

14) 도시계획연구회는 1946년 건축가 이천승(李天承)과 이희태(李喜泰)가 주도가 되어 개설된 건설 분야 최초의 연구소였다. 그 구체적인 활동사항은 확인할 수 없으나, 주로 도시계획과 주택문제를 중심으로 연구 활동을 하였고, 서울공대 토목과와 건축과에 도시계획 강의를 처음으로 개설하여 이천승이 강의를 담당하였다고 한다., Kwon, T. (1997.1.). Architects of Korea (8)-Lee, Chun-Seung (1), His Lifetime and Architectural Works. Journal of Korea Association of Architects,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116.

15) 最近 軍政廳으로부터 一萬戶를 新築하라는 指示를 받고 있는데 ... 于先 着手前에 場所와 設計는 方今 專門家들의 손으로 研究中인데 特히 住宅改善에 留意하여 建築設計는 懸賞을 하야 널리 意見을 듣기로 하였다. 住宅難解消도 不遠, 營團에서 一萬戶計劃(1945.12.22.). 工業新聞, 2면.

16) 서울에 一萬戶建築, 一年에 一千戶式 十年計劃, 資材와 勞力이 難題(1946.2.2.14.). 工業新聞, 1면.

17) 國庫에서 六億圓대에 새집 一萬戶新建에 着手, 兪仁救濟物資中心으로 營團서(1946.2.19.). 自由新聞, 1면.

18) 서울內 新住宅, 今年는 一萬戶(1946.3.20.). 工業新聞, 1면.

19) 유상하는 심사평에서 응모결과에 대한 첫 소감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倭政時代에 比하여 應募者가 多數(應募案이 86案)이고 多大한 努力을 가지고 熱心히 本計畫에 參與하였고 大端히 優秀한 傑作이 많았다는 것을 優先 擧げた. 劉相夏(1947.3.). 앞의 글, 17.

한편, 실제의 현상모집 당시 『工業新聞』에 발표된 요강에서는 ‘集團計劃圖에는 集團住區 及 其他施設の 計劃을 明記’하도록 하여 도시형 주택지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으며, 소요도면과 설계 설명서는 다음의 <Table 1>과 같은 양식에 맞추어 제출하도록 하였다.

Table 1. Submission of Necessary and Descriptions

종류	1종	2종	3종	비고
집단설계도	300분의 1	300분의 1	300분의 1	
배치도	100분의 1	100분의 1	100분의 1	
평면도	100분의 1	100분의 1	100분의 1	
입면도	100분의 1	100분의 1	100분의 1	2面 以上
상세도	20분의 1	20분의 1	20분의 1	重要部만
투시도	要	要	要	

※ 設計에 關한 說明概要를 圖面餘白에 簡明히 記入할 것(『工業新聞』, 1945. 11. 27.)

그 외에 응모도안의 작성요령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부가하였고²⁰⁾, 입선자 수와 상금은 주택종별로 1등 각 1인 3,000원, 2등 각 1인 1,500원, 3등 각 1인 800원 그리고 각 3인 200원이었다. 응모는 1인이 다수의 종별에 응모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3. 현상모집의 심사와 입선안 발표

국민주택 현상설계의 심사위원은 서울공대 학장이자 중앙공업연구소 소장이었던 안동혁(安東赫)과 주택영단 건설이사 이원식(李元植) 그리고 미군정 관계자로 추정되는 이 벤스가 고문으로 그리고 심사원은 모두 건축기술단의 회원들로서, 김세연 단장, 김윤기와 박인준 부단장, 유상하 상무이사, 김순하(金舜河) 연구부 이사, 장연채(張然采)와 이천승 사무부 이사 그리고 그 외 평의원이었던 손형순(孫亨淳)과 이균상(李均相)이 참여하였다.

현상모집의 심사원으로 당시 미군정 건축서장이었던 장연채, 조선주택영단 시절부터 줄곧 근무하고 있었던 김순하와 손형순(당시 건축과장), 도시계획연구회의 이천승, 서울공대 건축과 교수 이균상 등 광복 직후의 건축계에서 활약하던 여러 분야의 건축가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김윤기와 손형순은 1929년 조선주택 현상설계의 심사를 맡았던 적이 있고, 김순하는 1937년 조선풍주택 현상설계에서 2등안에 입선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주택개량의 주역들이었다. 그만큼 이 현상설계가 이전 시대에서부터 줄곧 논의되어 왔던 생활개선운동이나 주택개량의 연장선 상에서 당시의 주택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하고자 했던 목적성이 뚜렷했음을 알 수 있다.²¹⁾

설계도안의 모집은 1946년 2월 20일 정오까지 마감하였고, 동월 26일에 1차 심사위원회를 시작으로 몇 차례의 심사를 거쳐 3월 20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상무국장, 학무국장, 후생국장 등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의 참석²²⁾하에 중앙백화점(現 세종호텔 위치) 5층 화랑에서 수상식을 거행하였다. 마감까지 응모된 설계도안은 모두 86점이었으며²³⁾, 수상식 후에는 3월 21일부터 26일 6일간 전시회를 개최하였다.²⁴⁾ 각 종별 입선자는 다음의 <Table 2>와 같다.

Table 2. Prizewinning Competitors of the Competition

	1종(15평)	2종(20평)	3종(25평)
1 등	천호철(千晔哲)	이종원(李鐘元)	김희춘(金熙春)
2 등	김희춘(金熙春)	김희춘(金熙春)	천호철(千晔哲)
3 등	이희태(李喜泰)	조남수(趙南守)	이희태(李喜泰)
가작	성낙천(成洛天) 최은희(崔恩希) 천병승(千炳昇)	천호철(千晔哲) 이희태(李喜泰)*	강명구(姜明求) 성낙천(成洛天) 박학재(朴學在)
선외 가작	이명징(李明徵) 이종상(李鐘相)	김봉선(金鳳善) 오영섭(吳英燮)	강요섭(姜堯燮) 이원동(李源東) 성노훈(成耆勳)

* 『朝鮮建築』의 해당기사에는 ‘李喜泰’가 중복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입선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

입선자들의 현상설계 당시의 근무현황을 살펴보면, 건축사무소 5명(신흥건축사무소, 국제건축사무소, 오영섭건축사무소), 시공청부회사 4명(삼화토건공업주식회사, 대륙공영사, 아주토건주식회사, 장백토건사), 관청 3명(운수부, 미부대부평KBC), 기타(시공청부회사로 추정) 3명으로 당시 대부분의 건축조직에서 골고루 참여하였다.²⁵⁾

III. 현상설계 입선안의 평면구성과 특성

1. 주택종별에 따른 평면 특성 개요

국민주택 설계도안 현상모집에서는 종별로 1등에서 3등까지 각 1점 그리고 가작 및 선외가작에 5~6점으로, 모두 24점의 계획안이 입선되었으며, 그 중에서 종별 1등에서 3등까지의 9점의 평면도 만이 『朝鮮建築』에 발표되었다. 여기서는 이 9점의 입선안의 평면도에서 보이는 주택평면 상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국민주택 현상설계의 주택 종별은 현상모집의 요강에서

20) 가) 圖面은 天地五〇浬(註: 센티미터), 左右七〇浬의 白色 畫用 地에 黑書로 하고 陰影 또는 彩色를 하지 말 것. 但, 透視圖와 配置圖는 例外로 함. 나) 圖面에는 暗號를 (文字에 限함) 左隅에 記入하고 따로 暗號 及 住所, 氏名, 職業(勤務處並 記)를 記入한 紙片을 密封하여 封套表面에 前記 暗號를 記入할 것., 生活革新의 前衛 建築 技術團 猛活躍, 聲明과 懸賞募集(1945.11.27.). 工業新聞, 2면.

21) 당시의 주택난 해결에 대한 건축기술단의 활동은 국민주택 현상설계로만 그치지 않고, 대부분의 심사위원과 입선자들은 현상설계 직후 1947년 4월 23일의 총회에서 주택문제연구위원회로 소속되었으며, 그 이듬해인 1948년 7월 8일에 서울 종로 YMCA강당에서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주택 강연회를 개최하거나 1949년 9월 12일에 생활개선과 주택개량을 주제로 한 주택 좌담회를 개최하는 등 주택문제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1996). the above book, 7-10.

22) 國民住宅圖案懸賞募集當選者授賞式(1946.3.19.). 工業新聞, 1면.

23) 住宅設計當選者(1946.3.7.). 朝鮮日報, 2면.

24) 劉相夏(1947.3.). 앞의 글, 17.

25) Lee, Y. (1993). the above book, 152-153.

와 같이 주택의 평수에 따라서 구분된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입선안들에서는 종별, 즉 주거면적에 따른 뚜렷한 특징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입선안들의 평면계획 상의 수법과 기본적인 공간구성은 대부분 동일하였고, 종별에 의한 차이는 평수의 증가에 따른 침실 수의 차이 뿐이었다. 이것은 가족 형에 대한 구체적 설계요건이 없었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 1종(15평) 2실, 2종(20평) 3실, 3종(25평) 4실이 적정한 침실 수로 받아 들여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평면계획 상의 유사함은 종별에 관계없이 중복 응모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같은 설계자의 계획안이 다수 입선되었던 것에도 기인한다. 실제로 1종 1등과 3종 2등에 천호철(千皓哲)의 안, 1종과 2종 2등, 3종 1등에 김희춘(金熙春)의 안 그리고 1종과 3종 3등에 이희태(李喜泰)의 안이 중복 입선되었으며, 입선안들의 평면배치 수법은 설계자에 따라 다르지만 계획 상의 유사한 특성이 나타나는 것은 당시 건축가들이 현상설계를 통해 추구하였던 공통된 주택상이 반영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2. 건축가별 입선안의 평면 특성

1) 천호철의 입선안

천호철의 1종과 3종 입선안은 모두 서양식 응접실을 중심으로 침실(온돌)이 그 좌우로 배치된 평면 구성을 기본으로 두 안의 차이는 침실 수와 실 배치 상의 동선 처리에 있다.

Figure 1. Plans of Prizewinning Works Designed by Architect Chon, Ho-Chol; 1st Place of Type 1 (Left) & 2nd Place of Type 3 (Right) (From 『朝鮮建築』 of 1947 with Retouching by Author)

1종안은 현관을 들어서서 오른쪽으로 화장실이 위치하고 왼쪽으로 중복도를 통해 각 실로 진입하도록 계획하였고, 중복도의 남측으로 주택의 중앙에 큰 응접실이 그리고 그 북측으로는 욕실이 위치한다. 이 중복도는 곧바로 부엌의 찬마루로 연결되며, 찬마루에서 응접실과 안방으로 모두 출입이 가능하다. 즉, 찬마루를 중심으로 부엌과 응접실, 안방의 연락성을 강조한 듯 보이며 응접실로부터 남측의 테라스를 통해 정원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 안방의 난방은 부엌의 아궁이로부터 그리고 응접실 건너 맞은편의 침실은 함실 아궁이로부터 때도록 하였다.

3종안의 실 배치는 1종안과 유사하나 중복도 대신에 현관 홀로서 동선을 처리하고 있다. 현관을 들어서면 현관

홀로부터 안방을 제외한 침실들과 화장실로 출입이 가능하며, 이 현관 홀로부터 응접실로 바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응접실에서는 부엌과 안방으로 연결되며, 욕실과 테라스로도 출입하도록 하였다. 즉, 천호철의 두 안은 응접실을 중심으로 부엌과 안방을 연결하여 생활의 중심이 되도록 계획하였으며 동선 처리상 3종안의 응접실이 보다 독립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3종안의 안방과 각 침실의 난방은 1종안과 마찬가지로 부엌의 아궁이와 함실아궁이를 따로 두었다.

2) 김희춘의 입선안

김희춘의 응모안은 각 종별로 고루 입선되었는데, 평면 구성 상의 공통적인 특징은 현관 홀로부터 응접실로 진입하고 화장실과 주인실을 제외한 모든 침실이 응접실로부터 연결되도록 계획한 점 그리고 1개소의 침실은 서양실로 계획한 점이다.

3종안의 경우에는 현관 홀에서 이어지는 짧은 복도를 통해 화장실과 욕실로 출입하도록 함으로써 응접실의 독립성이 가장 높게 계획되었다. 마찬가지로, 응접실은 부엌과 안방이 직접 연결되어 생활의 중심이 되도록 하였고, 아동실은 현관 홀과 응접실 양쪽에서 모두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또, 안방과 응접실 맞은편 침실에는 뿔마루를 놓아 정원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돌방의 전통적 취향을 가미하였으며, 특히 안방의 뿔마루는 주택의 소대문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마당의 느낌을 갖도록 한 의도를 엿볼 수 있다.

Figure 2. Plans of Prizewinning Works Designed by Architect Kim, Hee-Chun; 2nd Place of Type 1 (Left), 2nd Place of Type 2 (Right Above) and 1st Place of Type 3 (Right Below) (From 『朝鮮建築』 of 1947 with Retouching by Author)

무엇보다 김희춘의 안에서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은 응접실의 공간을 분할하여 열린 공간의 식당을 뒤편으로 리빙 다이닝에 가까운 실 구성과 아동실을 모두 서양실로 계획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생활 상의 전통

적 요소를 두고 있으면서도 서구식의 입식 생활양식을 지향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김희태의 1종안은 입선안들 중에서 유일하게 2호 연립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김희태의 안 외에는 모집요강에서 요구했던 집단주구에 대한 계획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다.

3) 이희태의 입선안

이희태의 안의 평면구성은 중복도를 이용한 실 배치 수법을 따르고 있지만, 서구식의 응접실 대신에 대청을 중심으로 한 안방과 건넌방의 전통적인 공간구성으로 계획한 점이 다른 건축가들의 안에서는 볼 수 없는 특색이다.

Figure 3. Plans of Prizewinning Works Designed by Architect Lee, Hee-Tae; 3rd Place of Type 1 (Left) & 3rd Place of Type 3 (Right) (From 『朝鮮建築』 of 1947 with Retouching by Author)

중복도의 북측으로 현관과 화장실, 욕실을 배치하고 현관으로부터 중복도를 통해 부엌의 찬마루로 연결되도록 한 점 그리고 현관 옆에 전실(前室)의 형태로 입식의 간이 응접실을 둔 점은 전형적인 중복도형 배치수법을 적용한 것이며, 중복도의 남측으로는 안방-대청-건넌방 일련의 전통적인 실 배치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또, 이희태의 안에서 보이는 다른 특징은 부엌에 부뚜막 아궁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 대신에 안방과 대청 옆 온돌방 사이에 대청으로부터 출입할 수 있는 계단을 통해 지하실에서 모든 침실의 온돌 난방을 때도록 계획함으로써 다른 입선안에서 보이지 않았던 온돌 개량을 시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이종원 · 조남수의 입선안

이 외에 이종원과 조남수의 2종안에서도 현관에서 부엌

Figure 4. Plans of Prizewinning Works; 1st Place of Type 2 Designed by Architect Lee, Jong-Won (Left) & 3rd Place of Type 2 Designed by Architect Cho, Nam-Soo (Right) (From 『朝鮮建築』 of 1947 with Retouching by Author)

의 찬마루까지 연결되는 중복도를 이용한 실 배치 수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응접실과 부엌, 안방 중심의 생활공간은 천호철, 김희태의 안과 같은 수법의 평면구성이다.

두 안 모두 응접실을 리빙 다이닝으로 구성하여 서구식 생활양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조남수의 안은 현관 홀과 중복도를 이용하여 응접실의 독립성을 높임과 동시에 벽난로를 두어 서구식 응접실의 분위기를 극대화 하고 있다. 두 안의 각 침실들은 모두 온돌 난방이며, 마찬가지로 부엌의 아궁이와 함실 아궁이를 사용하였다.

IV. 국민주택으로서의 주거계획적 경향과 생활상

이제껏 살펴본 각 입선안들의 평면 특성은 설계자에 따라서 그 평면구성이나 실 배치수법이 조금씩 다른 특색을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특성들로부터 당시 건축가들이 새로운 생활상으로서 추구하고자 하였던 주거계획 상의 공통된 경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다.

1. 입식 서구생활양식의 도입

국민주택 현상설계에 있어서 건축가들이 고려했던 주거계획의 주안점은 무엇보다 서구식 생활양식의 도입에 있었다. 이희태의 안과 같이 전통적인 대청을 이용한 안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입선안은 응접실을 주거공간의 중심에 두고 온돌 침실을 제외한 주인실, 아동실, 부엌은 모두 입식의 생활양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민주택 현상설계의 심사가 끝나고 그 결과를 발표했던 당시의 신문기사들에서도 현상설계 입선안은 ‘조선과 서양식’²⁶⁾, ‘朝鮮洋式절충식’²⁷⁾, ‘개량식 조선가옥’²⁸⁾의 명칭으로 소개되어, 개량주택으로서 재래식과 서구식 생활양식의 절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거계획의 측면에서 이러한 절충적 시도는 응접실을 주택의 중심에 두고 침실(온돌)과 부엌 및 부속실들을 일렬로 둘러싸듯이 배치하여, 전통의 공간구성 방식에 서구식의 응접실을 접목시키려는 경향으로 나타났다.²⁹⁾ 응접실은 테이블과 소파, 안락의자, 식탁, 벽난로, 카펫 등 입식 가구와 의장을 갖추고, 응접실의 난방장치는 온돌 대신에 폐치카(Pechka)를 이용하여 입식생활 장소의 중심이 되도록 하였다.³⁰⁾

그리고 이 응접실은 부엌과 연계하여 리빙 다이닝으로서 가족 공동생활의 중심이 되도록 하고, 물론 침실의 기

26) 國庫에서 六億圓대에 새집 一萬戶新建에 着手, 卮救濟物資中心으로 營團서(1946.2.19.). 自由新聞, 1면 / 서울內 新住宅 今年은 一萬戶(1946.3.30.). 工業新聞, 1면.

27) 住宅營團新築準備, 垡地調査에 着手, 資材는 卮救濟會와도 交渉中(1946.2.20.). 工業新聞, 2면.

28) 一萬戶를 新築, 住宅營團에서 設計(1946.2.20.). 東亞日報, 2면.

29) 全般的으로 中央에 넓은 居室(마루방)을 두어 立式(洋式)으로 日常生活의 中心을 만들었고 左右에 溫突房을 配置하여 主로 寢室로 使用케 하였으며 ..., 劉相夏(1947.3.). 앞의 글, 27-28.

30) 劉相夏(1947.3.). 앞의 글, 28.

Figure 5. The Enlarged Plan of Reception room in 3rd Prize winning Work of Type 2 (From 『朝鮮建築』 of 1947 with Retouching by Author)

거양식은 흔들이지만 각 가족 구성원의 개인 공간으로서 독립성을 높임으로써, 현상설계에서 요구한 ‘새로운 주문화’로서 전형적인 서구식 생활공간의 주거계획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중복도형 배치수법의 계승

국민주택 현상설계의 입선안에서 서구식 생활양식의 도입과 더불어 나타나는 주거계획적 경향은 집중식 평면 계획과 그에 따른 실 배치수법의 변화였다.

입선안들의 평면 특성으로부터 응접실 중심의 주거공간 계획에 있어서 전체적인 평면배치 수법은 이미 주택개량 운동에서 등장했던 중복도형 배치수법이 강하게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6>의 건축가 박길룡의 집중식 평면에 대한 도식에서와 같이 복도와 현관을 도입하여 주거 내 동선을 최소화 하고 화장실과 욕실을 집약시키며 채광과 통풍 등의 위생을 고려하여 주요 거실들을 남향으로 배치함으로써 중복도형 주택의 개량적 장점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김희춘의 2종안이나 이희태의 안에서와 같이 현관 옆에 서양실(주인실)이나 입식의 간이 응접실을 마련했던 것은 중복도형의 개량주택에서 객실(사랑)과 가족실(안방)을 분리 배치했던 절충적 수법³¹⁾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Figure 6. Explanatory Diagram about Centralized House Planning for Improving the Arrangement of Dwelling Space Illustrated by Architect Park, Gil-Ryong (From 朴吉龍 (1933))

31) 家族의 生活室과 內客用 時의 所用할 別室을 要하겠다 하면 歐米人이 生活室과 食堂을 區別하는 代身에 우리는 客室과 生活室을 別하여 客室은 主人의 書齋를 兼케 하고 生活室은 食堂을 兼케 하야 스면 過히 不便이 업쓰리라고 生覺합니다. 金惟邦(1923.4.). 文化生活과 住宅, 우리가 選擇할 小住宅(其三), 開闢, 34, 61.

국민주택 현상설계에서 이러한 배치수법이 적용된 것은 단순한 학습에 의한 반복적 계획이라기 보다는, 과거 중복도를 이용한 주거 내 동선과 실 배치의 합리화를 위한 개량주택의 모델을 바탕으로 새로운 생활양식을 창안하고자 했던 당시 건축가들의 시도였다. 한편, 중복도형 실 배치에서 응접실을 도입하기 위해 복도의 길이를 짧게 한 다든지, 복도 대신에 현관 홀을 설치하거나 주거 내 동선을 응접실을 중심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시도로부터 배치수법이 변화해 가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7. Plans for Housing Improvement Proposed by Kim, Soon-Ha and Kim, Yun-Ki who were judges of the Competition; Plan of 2nd Prizewinning of Housing Plan Competition of 1937 Designed by Kim, Soon-Ha (Left) (From 『朝鮮と建築』 of 1937) and Proposed Plan of Kim, Yun-Ki (Right) (From 『東亞日報』 of 1930)

이러한 평면 배치수법은 대한주택공사가 시멘트 블록의 양산(1957) 이후에 주로 건설, 보급했던 공영주택 15평형의 기본형과 비교해 볼 때, 거실 중심의 주거계획이 정착되어 갔던 과정의 시작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Figure 8. Typical Type of Public House (49.5 m²) of the Year 1966 Constructed by the Korea National Housing Corporation (From 『Housing Complex of KNHC: 1954~1970』 of 1975)

3. 공지(空地)의 활용

국민주택 현상설계의 입선안에서 집중식 평면구성과 함께 주목되는 것은 공지에 대한 활용방안이다. 과거 채래주택의 평면 집약화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공지의 확보는 주로 채광과 통풍을 위한 위생적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³²⁾되었다고 한다면, 국민주택 현상설계에서는 이

32) 우리 生活는 新鮮한 空氣와 日光을 絶對로 要求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生活容器인 住家는 新鮮한 空氣와 日光을 받기에 適當하도록 構成되어야 할 것이다. 住家의 塲이 空氣와 日光을 주게 하는 役割을 갖인 部分이다. ... 住家는 建物の 周圍에 日光을 받고 空氣를 通게 하는 窓戶가 있다 하면 그 周圍에 相當한 空地가 있어야 할 것이다. 朴吉龍(1935.11.). 在來建築의 畸形의 傾向, 生活를 爲함이나? 賣買를 爲함이나?, 朝光 1(1), 197-198.

러한 공지의 확보 차원에서 나아가 도시주택으로서 공지를 좀 더 활용하여 주택 내·외부의 동선과 기능적 관계를 포함한 주거계획의 일부로서 적극 끌어 들이고 있다.

Figure 9. The Enlarged Plan of Courtyard in 1st Prizewinning Works of Type 3 (From 『朝鮮建築』 of 1947 with Retouching by Author)

모든 입선안에서 앞마당 쪽으로는 응접실로부터 출입이 가능한 테라스를 설치하고 관상용 식재와 텃밭을 두어 필지 내의 공지를 정원처럼 사용하게끔 하였고, 뒷마당 쪽으로는 부엌의 뒷문 가까운 곳에 장독대와 광, 수도를 두어 가사노동의 동선을 최단으로 하여 가사의 능률과 편리를 도모하였다.

4. 부엌 및 온돌 개량의 대응

국민주택 현상설계의 입선안에서 나타나는 주거계획 상의 또 다른 특징적 경향은, 부엌의 공간적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어느 건축가이든 동일한 구조의 개량 부엌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Figure 10. The Enlarged Plan of Reformed Kitchen in 3rd Prize winning Work of Type 2 (From 『朝鮮建築』 of 1947 with Retouching by Author)

이희태의 입선안을 제외한 입선안에서 부엌은 기본적으로 난방과 취사 겸용의 부뚜막 아궁이를 둔 재래식 부엌이지만, 아궁이 주변의 바닥 외에는 전부 찬마루를 설치하여 응접실과 같은 높이의 플로어로 직접 연결되도록 하였다.³³⁾ 그리고 찬마루에는 조리대와 개수대, 찬장 등 입식 설비를 설치하여 재래식 부엌에서의 가사노동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부엌의 바닥 높이와 가구의 개선된 구조는 생활개선운동에서 꾸준히 논의되었던 개량부엌의 전형적인

33) 廚房은 房과 同一平面으로 하여 부뚜막 部分만 在來式을 利用하는 等 ... 革新的 平面計畫과 創意가 많았다. 劉相夏(1947.3.). 앞의 글, 28.

형태가 정착된 것이며, 나아가 온돌 난방을 유지하면서 응접실의 입식 기거양식과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는 찬마루를 이용한 개량 부엌의 구조가 적합하였던 것이다.³⁴⁾

Figure 11. A Proposal of Reformed Kitchen Designed by Architect Park, Gil-Ryoung (From 『東亞日報』 of 1932)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재래식 아궁이를 폐지한다는 지, 취사 전용의 신식화덕(풍로)을 설치한 예는 이희태의 입선안 밖에 없었으며, 이 점에 대해 유상하는 심사평에서 온돌 개량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에 유감을 표하였다.

V. 국민주택의 형 계획과 건설사업

국민주택 현상설계는 앞서 모집요강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실제의 주택 건설을 염두에 두고 실시되었는데, 이후 주택건설에 대한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주택 현상설계의 심사결과가 발표될 무렵, 신문지상에는 주택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소식도 함께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신축주택은 해외귀환 동포나 전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되 일시 완납과 장기 분할로 나누어 분양하기로 하였다.³⁵⁾

주택의 규모는 목조 단층을 기본으로, 주택 평수에 따라 갑형(대지 100평에 건평 21평), 을형(대지 80평에 건평 16평), 병형(대지 60평에 건평 11평)으로 계획되었고 종별 건설호수는 갑형이 2천호, 을형이 6천호, 병형이 2천호이었다.³⁶⁾ 『工業新聞』의 기사에서도 이 신축주택의 침실 수가 2개소라고 언급되어, 신축주택은 국민주택 현상설계의 2종안에 해당하는 을형을 위주로 건설할 예정임을 알 수 있다.

현상모집 초기에 계획했던 주택 1만호 건설이 얼마나 순조롭게 진척되었고 실제로 어느 정도 건설 목표량을 달성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1947년의 『朝鮮建築』에 소개된 조선인 주택행정처 신축주택의 공사개요³⁷⁾에 소개

34) 個中에는 溫突을 排斥하여 洋式 生活樣式을 主張한 사람도 있었고 溫突을 居室(마루방)보다 40cm 程度 lowered 立式과 坐式과의 均衡을 取하여 寢室에 寢台의 性能을 發揮케 하았다. 劉相夏(1947.3.). 앞의 글, 28.

35) 서울內 新住宅, 今年은 一萬戶(1946.3.20.). 工業新聞, 1면.

36) 國庫에서 六億圓에 새집 一萬戶新建에 着手, 安拉救濟物資中心으로 營團서(1946.2.19.). 自由新聞, 1면.

된 주택 형을 살펴보면, 국민주택 현상설계의 입선안이 주택 행정처 주택의 설계에 적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주택 행정처의 주택은 20평의 갑형과 15평의 을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1947년 11월 30일 완공 예정으로 동년 7월 1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 적산가옥 거주자들의 이주를 위해 건설하는 것으로,³⁷⁾ 건설 위치는 안암동 161호, 낙수동 46호, 충정로 33호, 북아현동 49호, 신당동 42호, 하왕십리동 19동 등 서울 시내 각지에 350호가 건설되었으며, 그 중 갑형은 140호, 을형은 210호가 건설되었다. 조선주택영단 건축과가 설계를 담당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국민주택 현상설계의 입선안을 기본으로 하여 주택영단 건축과가 실시 설계했을 개연성이 높다.

Figure 12. Typical Plan of Two Types of Public Housing Constructed By the Cho-Sun Housing Administration (From 『朝鮮建築』 of 1947 with Retouching by Author)

각 평면형을 살펴보면, 20평의 갑형은 국민주택 현상설계에서 이종원이 설계한 2중 1등안을 기본으로 설계되었는데 현관의 위치와 각 실의 배치 그리고 주택 전체의 벽체 구조가 일치한다. 다만, 부엌과 안방 쪽의 벽체를 요철이 없도록 하여 단순화 하였고 현관 옆 침실의 수납장을 생략하였으며, 찬마루의 길이를 입선안보다 짧게 처리하였다. 또한, 15평의 을형은 천호철의 1중 1등안을 기본으로 하여 온돌방의 창대와 창문을 줄이고 응접실과 안방의 전면 벽체 선을 일치시켜 단순화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국민주택 현상설계가 실제의 주택 건설을 염두에 두고는 있었으나 입선안들의 평면 형태가 외벽의 요철이 심하고 창호가 많았던 점이 결점으로 지적된 것처럼,³⁹⁾ 공사비 절감과 시공의 용이함을 위해 장방형의 단순한 평면 형태로 정리되었던 것이다.

주택 행정처 주택은 중정식의 재래 주택에서 탈피하여

집중식 평면으로 계획되었고, 입식의 거실을 중심으로 한 평면구성과 주요실을 남향으로 배치한 평면 특성으로부터,⁴⁰⁾ 국민주택 현상설계의 입선안에서 나타났던 주거계획 상의 경향이 그대로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VI. 결 론

조선건축기술단이 개최했던 국민주택 설계도안 현상모집은 광복 직후 어려웠던 건축계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축가들의 힘으로 주택난을 해결하고 동시에 신시대의 국민생활에 적합한 주거형을 모색하고자 했던 기획이었다. 당시 사회 전반에 팽배했던 쇄신의 분위기가 현상설계에도 반영되어 이전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주거형과 그에 적합한 생활상을 찾고자 하였으며, 입선안들의 평면 특성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주거계획적 경향과 당시 건축가들이 현상설계에서 추구하였던 생활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국민주택 현상설계의 모집은 이미 이전 시대의 생활개선운동에서부터 시작된 주택개량의 논의를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중복도형 배치수법을 위주로 한 집중식 평면형으로의 개량, 현관과 복도를 이용한 주거 내 동선의 최소화, 주요 거실의 남향 배치 등 중복도형 개량주택의 이점이 현상설계 입선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나아가, 찬마루를 이용한 입식의 개량부엌, 부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집중식의 합리적인 평면 계획이 새로운 도시주택형으로서 보다 발전된 형태로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생활상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새로운 생활양식으로서 입식의 응접실이 모든 입선안에서 제시되었다. 현관에서 부엌의 찬마루까지 이어지는 동선과는 분리된 응접실을 주거 공간의 중심에 배치함으로써 입식의 응접실이 생활의 중심공간이 되도록 하였고, 침실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어디까지나 서구식 생활양식을 앞으로의 생활상을 설정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국민주택 현상설계의 입선안이 실제의 주택 건설에 있어서 계획의 바탕이 되었던 점에서 이러한 주거계획적 경향은 이후의 도시주택의 보급, 나아가 오늘날의 거실중심형의 생활양식이 정착되기까지의 중요한 주거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광복 이후의 주거동향의 고찰에 있어서 조선건축기술단의 주택문제연구위원회의 활동사항 그리고 주택개량 담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과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전망된다.

REFERENCES

1. 工業新聞, 1945.11.24.-1950.6.27., 공업신문사.
2. 國庫에서 六億圓대에 새집 一萬戶新建에 着手, 卮拉救濟物資中心으로 營團서 (1946.2.19.). 自由新聞, 1면.
3. 金惟邦 (1923.4.). 文化生活과 住宅, 우리가 選擇할 小住宅(其

37) 朝鮮人住宅行政處: 住宅新築 工事概要(1947.12.). 朝鮮建築, 2(1), 32
38) 災民의 집, 四百戶完成(1947.10.10.). 東亞日報, 2면.

39) 外觀에 있어서는 全般的으로 研究努力한 點이 보이지 아니하였고 窓戶가 많다 ... 그리고 集團計畫과 大量生産計畫이 없었음은 憾憾으로 生覺된다. 劉相夏(1947.3.). 앞의 글, 28.

40) 주택개량과 생활향상을 목표로 종래의 각실의 長列式 배치를 배제하여 집합식으로 중앙에 공용실을 두어 능률적인 생활과 가족의 團樂을 도모하는 동시에 입식생활을 추진케한 것, 각 온돌을 주위에 배치하여 가족개별의 침실 및 私室로 함으로써 習俗을 존중하면서 독립성을 가지게 한 것, 중요실을 남면에 배치하고 채광, 통풍을 충분하게 하고, 각 방한상 2층창을 채용하고 욕실을 두는 등 보건후생에 유익한 것, 朝鮮人住宅行政處: 住宅新築 工事概要(1947.12.). 朝鮮建築, 2(1), 32.

- 三), 開闢, 34, 56-61.
4. 朴吉龍 (1933). 在來式 住家改善에 對하여, 경성;이문당.
5. 朝鮮風住宅二等當選案 (1937.11.). 朝鮮と建築, 16(11), 口繪.
6. 金允基 (1930.10.11.). 유일한 휴양처 안락의 홈은 어찌하게
세울가-직업, 취미, 수입정도에 알맞게 물론 위생적이어야 한
다. 東亞日報, 5면.
7. 朴吉龍 (1935.11.). 在來建築의 畸形的 傾向, 生活을 爲함이나
? 賣買를 爲함이나?, 朝光. 1(1), 197-201.
8. 朴吉龍 (1932.8.14.). 廚에 對하여(六), 東亞日報, 5면.
9. 新住宅萬戶, 住宅營團서 新築 (1945.12.24.). 東亞日報, 2면.
10. 劉相夏(1947.3.). 國民住宅 懸賞設計 應募圖案 審査를 맞
이 고, 朝鮮建築. 1(1), 27-32.
11. 一萬戶를 新築, 住宅營團에서 設計 (1946.2.20.). 東亞日報, 2면.
12. 全國文化總聯發足 (1947.2.9.). 東亞日報, 2면.
13. 災民의 집, 四百戶完成 (1947.10.10.). 東亞日報, 2면.
14. 朝鮮建築, 1947.3.~1949.5., 조선건축기술단.
15. 住宅設計當選者 (1946.3.7.). 朝鮮日報, 2면.
16.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1996). *50 Year History of
AIK:1945-1995*, Seoul: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17. Cho, K. (1997).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cond Half of 1940s in Korean Modern Architecture
focused on 『ChosunKunchook (朝鮮建築)』*. Yonsei
University, Seoul.
18. Korea National Housing Corporation (1975). *Housing
Complex of KNHC:1954~1970*, Seoul: Korea National
Housing Corporation.
19. Kwon, T. (1997.1.). *Architects of Korea (8)-Lee, Chun-
Seung(1), His Lifetime and Architectural Works*. Journal of
Korea Association of Architects,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114-117.
20. Lee, Y. (1993). The Study on Traditional Characteristics of
Competition Works for People Housing in 1945~46.
Journa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38,
147-165
21. Park, Y. (2010). *Theory of Korean Modern Housing*, Seoul:
Kimoondang.

접수일(2011. 7. 22)

수정일(1차: 2011. 11. 17, 2차: 2011. 12. 7)

게재확정일(2011. 12. 16)